

아모스서에서의 지진의 의미에 대한 고찰*

이상원(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아모스서의 표제(1:1)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예언(2:6-16)과 다섯 번째 환상보고문(9:1-4)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진이 언급되거나 암시된다는 점이다. 표제에서는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이라는 지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으로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때를 분명하게 나타낸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예언에서는 지진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암시되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또한 다섯 번째 환상보고문에서는 지진이 이미 일어난 것으로 암시되며 지진보다 더한 파국적 결과를 불러올 전쟁 심판 예언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8018).

이와 같이 시제를 달리하는 지진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표제에서 언급된 지진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에서 심판으로 선포되고 다섯 번째 환상보고문에서 그 예언이 실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본문은 표제, 예언, 예언의 실현이라는 첫 아모스서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 세 본문이 첫 아모스서에 속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첫 아모스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언제 세 본문이 처음으로 통일성 있게 구성되었는가? 그 구성에서 지진이라는 모티브가 갖는 의미와 기능은 무엇인가?

아모스서의 형성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처음 시작한 볼프(H.W. Wolff)에 따르면, 표제의 일부(드고아 출신의 아모스의 말씀들)와 민족심판예언의 일부(아람, 블레셋, 암몬, 모압, 북이스라엘(2:10-12 제외))와 3-6장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예언의 일부와 환상보고문이 가장 오래된 본문으로 예언자 아모스가 기록했다. 그리고 나서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기원전 735-733년)이 있던 즈음에 그 전쟁에 관심을 가진 아모스의 제자들(기원전 760-730년에 활동)이 전승된 아모스의 기록에 일부를 덧붙여 첫 아모스서가 생겨났다. 표제의 지진에 관한 구절, 아모스-아마샤 이야기(7:10-17), 북이스라엘 심판예언(8:4-14)의 대부분, '요셉의 남은 자'에게 선포되는 삶에 대한 권면(5:14-15)은 그때 덧붙은 것이다.¹

한편 예레미야스(J. Jeremias)는 지진과 관련된 세 본문(1:1; 2:6-16[10-12절 제외]; 9:1-4) 모두를 첫 아모스서에 포함시킨다. 그는 첫 아

1 H.W. Wolff, *Dodekapropheten 2. Joel und Amos* (BK XI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5), 129-138. 볼프는 아모스서의 편집 과정을 여섯 단계로 나누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상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아모스'에 대한 고찰: 아모스 5장 1-17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81 (2021년 9월), 각주 8을 참고하라.

모스서를 세 부분(1-2장; 3-6장; 7-9장)으로 나누고, 5장을 중심으로 가운데로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예언(3-6장)을 민족심판예언(1-2장)과 환상보고문(7-9장)이 감싸고 있다고 밝힌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예레미아스는 문학적으로 통일성 있는 첫 아모스서가 북이스라엘 멸망(기원전 722년) 이후에 아모스의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² 기록 시기 결정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

예레미아스의 첫 아모스서 범위를 받아들여 아모스서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5장 1-17절을 분석하면, 첫 아모스서가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멸망 전 그러나 시리아-에브라임 전쟁 이후 곧 기원전 733-722년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요셉의 집’과 ‘요셉의 남은 자’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대신 삶을 선택하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서 말씀의 선포 대상은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에서 살아남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 때문이다.³

이 글에서는 지진과 관련된 표제(1:1), 북이스라엘 심판예언(2:6-16), 마지막 환상보고문(9:1-4)의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기본본문들을 찾아내고, 세 본문에서의 지진의 구성적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첫 아모스서에서 문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첫 아모스서가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J. Jeremias, "Amos 3-6. Entstehungsgeschichte eines Prophetenbuches", *Hosea und Amos. Studien zu den Anfängen des Dodekapropheten* (FAT 13; Tübingen: Mohr Siebeck, 1996, ㄱ), 142-156; "Völkersprüche und Visionsberichte im Amosbuch", *Hosea und Amos. Studien zu den Anfängen des Dodekapropheten* (FAT 13; Tübingen: Mohr Siebeck, 1996, ㄴ), 157-171; 요르 예레미아스, 「아모스」(채홍식 옮김), (서울: 성서와함께, 2006), 19-24. 원제는 J. Jeremias, *Der Prophet Amo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아모스서의 편집 단계에 대한 예레미아스의 견해에 대해 이상원, 윗글, 157, 각주 10을 참고하라.

3 이상원, 윗글, 155-173 참고.

2. 표제(1:1)

아모스서의 표제(1:1)는 예언자 아모스의 출신지, 직업, 활동 시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준다. 이 표제는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 재구성을 시도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한 번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⁴ 이를테면, 볼프는 표제와 관련하여 세 단계의 형성 과정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것은 3-6장에 있는 말씀모음집의 표제로서 아모스가 기록한 ‘드고아의 아모스의 말씀들’이다.⁵ 여기에 이 말씀모음집과 이후 기록된 민족심판예언과 환상보고문이 기원전 735년경 아모스의 제자들에 의해 결합되면서 두 번째 관계사절과 지진에 관한 구절이 덧붙여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말씀이라’는 첫 아모스서의 표제가 되었다. 지금의 표제는 포로시대 신명기사가적 편집에 의해 첫 번째 관계사절과 연대 표시가 추가된 것이다.⁶

볼프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아스는 아모스의 제자들에 의한 첫 아모스서(기원전 722년 이후 포로시대 이전)의 표제로서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말씀이라’를 제안하고, 첫 번째 관계사절과 연대 표시는 포로시대의 신명기사가적 편집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 여기고 기본본문에서 제외한다.⁷ 기록 시기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르지만 첫 아모스서의 표제로서 볼프와 예레미아스가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4 M.D. Carroll, *The Book of Amo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20), 119.

5 H.W. Wolff, *윗글*, 129-130.

6 H.W. Wolff, *윗글*, 130-131, 137-138, 147, 149-151.

7 J. Jeremias, “Zwei Jahre vor dem Erdbeben” (Am 1,1), *Hosea und Amos. Studien zu den Anfängen des Dodekapropheten* (FAT 13; Tübingen: Mohr Siebeck, 1996. ㄸ), 185-186; 요르 예레미아스, *윗글*, 25-28.

דְּבָרֵי עֲמוּסָה מִתְּקוּעַ אֲשֶׁר חָזָה עַל־יִשְׂרָאֵל ... שְׁנָתַיִם לִפְנֵי הֲרָעֵשׁ: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
 은 말씀이라”

이들이 제안하는 기본본문은 이 기본본문에서 제외되는 두 부분의
 문학적 통일성을 살펴 확인될 수 있다. 하나는 아모스의 직업을 알려 주
 는 첫 번째 관계사절⁸이다. 이 문장은 아모스와 그의 출신지와의 연결
 을 끊을 뿐만 아니라(삿 12:8; 왕상 17:1; 왕하 23:36; 미 1:1; 나 1:1 참고) 두
 번째 관계사절⁹을 선행사(עֲמוּסָה[아모스] 또는 דְּבָרֵי[디브레])와 분리시킨다
 (사 1:1; 2:1 참고). 첫 관계사절은 포로시대 이전 본문인 아모스-아마샤
 이야기(7:10-17)를 토대로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¹⁰ 다른 하나는
 연대 표시이다. 연대 표시에서 두드러진 점은 신명기사가의 분열왕국
 시대에 대한 서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함께 나온다는 것이다. 이 연대 표시는 많은 학자들이 제안
 하듯이 포로시대의 신명기사가적 편집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8 אֲשֶׁר-הָיָה בְּנִקְרָאִים(아세르 하야 반노크담).

9 אֲשֶׁר חָזָה עַל־יִשְׂרָאֵל(아세르 하자 알 이스라엘).

10 H.W. Wolff, *윗글*, 147; 요르 에레미아스, *윗글*, 26. 그 외 첫 번째 관계사절을 후대의 첨
 가로 보는 것에 대해 J.L. Mays, *Amos. A Commentary* (OTL; London: SCM, 1969), 18;
 G.V. Smith, *Amos. A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Regency, 1989], 20도 참고하
 라. 반면에 두 번째 관계사절을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J.A. Soggin, *The*
Prophet Amos. A translation and commentary (London: SCM), 1987, 26; J. Wöhrle, *Die*
frühen Sammlungen des Zwölfprophetenbuchs. Entstehung und Komposition (BZAW 360;
 Berlin: Walter de Gruyter, 2006), 91을 참고하라.

7장 14절의 Hapaxlegomenon인 בִּקְרָא (보케르/목자)는 엘리거(K. Elliger)와 함께 1장
 1절의 נִקְרָא(노케드/목자)로 읽을 수 있다(BHS, H.W. Wolff, *윗글*, 353; J.L. Mays, *윗글*,
 138도 참고). נִקְרָא는 구약성서에서 아모스 1장 1절과 포로시대의 신명기역사서에 들어
 있는 열왕기하 3장 4절에만 나온다. 포로시대 이전의 본문인 아모스-아마샤 이야기에
 대해 H.W. Wolff, *윗글*, 134; 요르 에레미아스, *윗글*, 22를 참고하라.

11 H.W. Wolff, *윗글*, 147, 150-151; W.H. Schmidt,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des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들’로 확인되는 기본본문의 표제로부터 아모스의 활동 시기¹²가 유추될 수 있다. 고고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제에 언급된 지진은 기원전 8세기 중반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¹³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모스의 활동 시기를 알리는 기점으로 지진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한다. 하나는 첫 아모스서의 청중/독자들이 지진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¹⁴, 다른 하나는 그것을 예언자

Amosbuche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77 (1965), 170; J.A. Soggin, *윗글* (1987), 26; J.L. Mays, *윗글*, 18; 요르 에레미아스, *윗글*, 25-26; G. Eidevall, *Amo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Yale Bible 24G;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17), 95; J. Wöhrle, *윗글*, 90-91; G.V. Smith, *윗글*, 20도 참고.

- 12 아모스의 활동 시기는 연대 표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87-747년에 북왕국을 다스렸다. 웃시아의 통치 시기는 기원전 773-736년이지만 심한피부병으로 기원전 759년부터 아들 요담이 실질적으로 유다를 다스리게 된다(왕하 15:5 참고). 그런데 표제에는 요담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아모스는 기원전 759년 이전 그리고 지진 2년 전, 곧 760년경에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 아모스의 활동 시기를 기원전 760년경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H.W. Wolff, *윗글*, 106; M.D. Carroll, *윗글*, 7, 10을 참고하라.
- 13 아하로니(Y. Aharoni)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14km 떨어져 있는 하술(Hazor)의 발굴에서 매우 심각한 지진으로 인한 파괴의 흔적을 찾아내고 그 지진의 시기를 기원전 760년경으로 추정한다(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trans. A. F. Raine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99. I. Finkelstein, “Hazor and the North in the Iron Age: A Low Chronology Perspective”,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14 [1999], 55-70도 참고).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하술을 비롯한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동쪽 지역(Deir ‘Alla, Gezer, Lachish, Tell Judeideh, ‘En Haseva)에 있었던 대지진의 시기를 새롭게 750년경(오차 3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S.A. Austin/G.W. Franz/E.G. Frost, “Amos’s Earthquake: An Extraordinary Middle East Seismic Event of 750 B.C.”, *International Geology Review* 42:7 [2000], 657-671). 이러한 추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긍정적 평가에 대해 방기민, “아모스서 통일성 논쟁에 대한 재고. 아모스의 지진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17 (2023년 10월), 129-130을 참고하라. 또한 소긴은 아모스 8장 9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일식에 근거하여 지진의 시기를 기원전 758/7년 또는 752/1년으로 추정한다(J.A. Soggin, “Das Erdbeben von Am 1,1 und die Chronologie der Könige Ussia und Jotham von Juda”,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2 [1970], 117-121). 그러나 볼포는 이 일식의 시기를 기원전 763년으로 본다(H.W. Wolff, *윗글*, 106, M.D. Carroll, *윗글*, 7도 참고).
- 14 H.W. Wolff, *윗글*, 150; J. Jeremias, *윗글* (1996, ㄷ), 185.

의 활동과 시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지진의 성격을 신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제의 지진은 구성과 내용에서 그 지진이 암시되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예언과 다섯째 환상보고문과의 연관성을 함축한다.¹⁵

3.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2:6-16)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예언(2:6-16)은 8개의 연작시로 이루어진 민족심판예언(1-2장)의 마지막에 놓여 있다.¹⁶ 이 마지막 심판예언은 언급되는 죄가 특별히 길고 자세하다는 이유로 일부 학자들에 의해 앞선 심판예언들과 통시적으로 분리되기도 한다(E. Würthwein, V. Fritz 등).¹⁷ 그러나 형식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심판예언은 아람(1:3-5), 블레셋(1:6-8), 암몬(1:13-15), 모압(2:1-3) 심판예언과 같은 맺음말 형식으로 묶인다.¹⁸ 또 그것들을 내용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예언이 다른

15 예레미아스에 따르면, 표제의 지진에 대한 언급은 아모스가 선포한 예언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요록 예레미아스, 윗글, 28).

16 민족심판예언의 정형화된 틀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고찰되었다. 이를테면 박철우, 「아모스/오바다」(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2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79; 류호준/주현규, 「아모스서. 시온에서 사자가 부르짖을 때」(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108-109; 구자용, “아모스서의 이방민족들에 대한 예언: 심판과 구원의 동일한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과 이방민족들”,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8 (2018년 4월), 31-35; 김영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1-2장의 열방심판 본문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 (2012년 10월), 32-33; 배희숙, “아모스의 열방 심판 말씀(1:3-2:5): 이웃 민족의 ‘서너 가지 죄’의 성격과 유다 심판 말씀의 기능”, 「장신논단」 54 (2022년 12월), 11-12를 참고하라.

17 E. Würthwein, “Amos-Studie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62 (1949-1950), 35-40; V. Fritz, “Die Fremdvölkersprüche des Amos”, *Vetus Testamentum* 37 (1987), 34-38.

18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곱 민족들에 대한 심판예언들은 형식과 내용에서 두 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아람(1:3-5), 블레셋(1:6-8), 암몬(1:13-

네 나라 심판예언에 비해 길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네 민족의 예언들과 북이스라엘 예언을 통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 예언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수사학적인 기법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따라서 북이스라엘 심판예언은 나중에 덧붙은 두로(1:9-10), 에돔(1:11-12), 유다(2:4-5)를 제외한²⁰ 아람

15), 모압(2:1-3)이고, 다른 하나는 두로(1:9-10), 에돔(1:11-12), 유다(2:4-5)이다. 첫 번째 묶음은 **וְהָיָה לְאִמֹּר**(아마르 아훤/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로 마무리되는데(1:5, 8, 15; 2:3), 두 번째 묶음에는 맺음말 형식이 없다. 또한 첫 번째 묶음에서는 ‘궁궐의 불사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는데, 두 번째 묶음에서는 심판이 ‘궁궐의 불사름’으로 제한되고 구체성이 없다(1:10, 12; 2:5).

아람(1:3-5), 블레셋(1:6-8), 암몬(1:13-15), 모압(2:1-3) 예언은 심판 내용에 따라 두 묶음(아람-블레셋; 암몬-모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람과 블레셋 예언에는 ‘왕궁을 집어삼키는 불’, ‘궐 잡은 자’, 지역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형제 나라인 암몬과 모압 예언에는 ‘불 지름’, ‘강력한 전쟁’,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이렇게 둘씩 짝을 이루고 있는 네 민족의 예언들과 비교하면 북이스라엘 예언의 기본본문(2:6-8, 13-16)은 맺음말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같은 형식을 하고 있다. 다만 1장 8절에는 **וְהָיָה**(아도나이/주)가 덧붙여 있는데, 계제에 따르면, 이를 통하여 블레셋 예언이 이어서 나오는 단락들과 경계를 짓고, 앞서 첫 번째 단락(아람 예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상보고문인 7장 6절에도 나타난다(H. Ges., “Komposition bei Amos”, *Alttestamentliche Studien* [Tübingen: Mohr Siebeck, 1991], 107, 각주 41. 요르 예레미아스, 윗글, 32, 각주 3도 참고).

19 오코넬(R.H. O’Connell)에 따르면, 동일한 패턴 안에 있는 작은 단락들과 구별되는 마지막 단락(N+1)은 수사학적인 기술에 의한 것으로 아모스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강조 용법이다(R.H. O’Connell, “Telescoping N+1 Patterns in the book of Amos”, *Vetus Testamentum* 46 [1996], 56-57). 다시 말하자면, 앞서 둘씩 짝을 이루고 있는 네 민족에 대한 심판예언은 북이스라엘 예언을 향하고 있는 일종의 ‘서곡’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배희숙, 윗글 [2022], 14-15).

20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두로, 에돔, 유다 예언은 같은 저자에 의해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본문들의 기록 시기에 대한 단서는 우선 유다 예언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에는 아모스서의 다른 곳, 특히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기원전 735-733년) 이후 북이스라엘 멸망(기원전 722년) 이전에 기록된 첫 아모스서에는 발견되지 않는 신학적 개념들과 척도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2장 4b절은 **וְהָיָה לְאִמֹּר**(토라/율법), **כִּי**(호크/울레), **וְהָיָה**(마아스/저버리다), **וְהָיָה**(사마르/지키다), **וְהָיָה**(할랄 아하레/ ~뒤를 따라가다)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다의 불순종을 고발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포로시대의 신명기역사서에서 이스라엘의 율법(불)순종과 이방신 숭배와 관련하여 사용된다(삿 2:12; 왕상 9:4; 왕하 17:15 등). 이방신 숭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또 다른 곳인 아모스 5장 26절은 산문 형태로 나중에 신명기사가각 편집에 의해 삽입된 것이다(W.H. Schmidt, 윗글, 188-191; J.A. Soggin, 윗글 [1987], 97-98, 101; H.W. Wolff, 윗글, 137, 304, 309-311; J.L. Mays, 윗글, 112-113; 요르 예레미아스, 윗글, 23;

(1:3-5), 블레셋(1:6-8), 암몬(1:13-15), 모압(2:1-3) 심판예언과 함께 민족심판예언의 기본본문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 기본본문

북이스라엘의 심판예언(2:6-16)은 심판의 근거인 죄 고발(6-12절)과 심판 선언(13-16절)으로 나눌 수 있다. 죄에 대한 고발은 다시 두 부분(6-8, 9-12절)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6-8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네 가지 죄가 언급되고, 둘째 부분(9-12절)에서는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에 대해 다룬다.

본문의 문학적 통일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산문으로 되어 있는 9-12절이 눈에 띈다. 이 구절들은 운문으로 되어 있는 6-8절(죄 고발)과 13-16절(심판 선언)의 연결을 방해한다. 그리고 9-12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지적한다. 게다가 아모리 사람들의 전멸, 출애굽과 광야 여정, 예언자의 역할, 나실인 규정에 관한 것이 언급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신명기사가적 신학에 기초한 것들이다. 따라서 9-12절은 유다 예언(2:4-5)과 함께 포로시대 후반 또는 포로시대 이후 신명기사가적 편집에 의해 삽입된 것으로 볼 수

T.S. Hadjiev, *The composition and redaction of the Book of Amos* (BZAW 393; Berlin/New York 2009), 166-169; J. Wöhrle, 윗글, 253 참고). 또한 예돔은 “그의 형제”에 대한 박해(1:11b)로 심판을 받는데, 오바다서(1:10-14)에서 볼 수 있듯이, 예돔은 형제 나라인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를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옛 유다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차지했다(겔 25:12-14; 35장). 이러한 예돔에 대한 적대적인 관점이 표현된 시기는 포로시대 또는 포로시대 이후이다(사 34장; 렘 49장 등 참고. W.H. Schmidt, 윗글, 176-177; H.W. Wolff, 윗글, 194-195; 요르 에레미아스, 윗글, 50; J.L. Mays, 윗글, 35-36 참고). 따라서 두로, 예돔, 유다에 대한 예언들은 포로시대 후반 또는 포로시대 이후의 신명기사가적 편집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W.H. Schmidt, 윗글, 174-178; J.A. Soggin, 윗글 [1987], 17-18; H.W. Wolff, 윗글, 137, 184-185; J.L. Mays, 윗글, 112-113; J. Jeremias, 윗글 [1996. ㄴ], 158-159; 요르 에레미아스, 윗글, 23 참고).

있다.²¹ 나중에 추가된 9-12절을 제외하면 기본본문은 네 개의 죄 고발(6-8절)과 두 개의 심판 선언(13-16절)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죄 고발(6-8절)

북이스라엘의 죄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6b-7절)과 이를 통해 축적한 부를 제물로 드리는 잘못된 야훼 제의(8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억압은 채무노예 제도의 악용(6b절), 불공정한 재판(7a절), 여종의 성적 착취(7b절)를 통해 고발된다. 6b절에서는 פְּרִיָּם(차디크/의인)²²와 אֵבְרוֹן(에브론/가난한 자)으로 표현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빚으로 인해 종으로 매매되는 상황을 고발한다. 채무로 인한 종에 관한 규정(출 21:2-11; 신 15:12-18)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스스로나 가족이 대신하여 채권자의 종이 되고, 빚값으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인이 된다. 그리고 채권자는 가족의 빚값으로 종이 된 여종을 (외국인으로 특정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

21 W. Dietrich, "JHWH, Israel und die Völker beim Propheten Amos", *Theologische Zeitschrift* 48 (1992), 320-321; J. Wöhrle, *윗글*, 98-100; 최종원, "신명기 계약 신학의 범주로서 아모스 윗기: 아모스서의 '서너 가지 죄'", 「구약논단」 24 (2018년 9월), 215. 10-12절만 신명기사가적 편집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W.H. Schmidt, *윗글*, 178-183; H.W. Wolff, *윗글*, 184; 요르 예레미야스, *윗글*, 61-65; G. Eidevall, *윗글*, 113을 참고하라.

22 볼프에 따르면, פְּרִיָּם(차디크/의인)가 법적으로 죄 없는 사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지 만, 여기서는 그에 대한 부당한 유죄 판결이 아니라 그가 돈에 팔리는 것을 다룬다. 이 낱말은 여기서 אֵבְרוֹן(에브론/가난한 자)과 대구를 이루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을 다루고 있는 아모스 8장 6절에서는 אֵבְרוֹן(달/힘없는 자)이 פְּרִיָּם를 대신하고 있다(H.W. Wolff, *윗글*, 200. 박철우, *윗글*, 102; G.R. Hamborg, *Still Selling The Righteous. A Redaction-Critical Investigation of Release for Judgment in Amos 2.6-16* [LHB/OTS 555; New York-London: T & T Clark International, 2012], 202도 참고). 법정 용어와 관련된 פְּרִיָּם에 근거하여 이 구절이 뇌물을 주고받는 불공정한 재판 과정을 비난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최인기, 「아모스」 (한국장로교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81-82를 참고하라.

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출 21:8). 이처럼 채무로 인한 종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들의 인신매매를 허락하지 않는다.²³ 따라서 6b절에서는 경제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노예 제도를 악용한 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7a절에서는 ‘머리를 땅의 먼지 속에 짓밟다’와 ‘길을 굽게 하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약자인 לָלוּ(탈/힘없는 자)과 עָנָו(עָנִי)(아나브(아니)/연약한 자)에게 행한 불공정한 재판을 고발한다(사 10:2; 잠 22:22 참고).²⁵

7b절에서는 가족의 채무관계로 인한 여종(הַעֲבָדָה<나아라>)²⁶을 채권자와 그 아들이 성적으로 약탈한 죄를 고발한다. 종에 관한 법에 따르면(출 21:7-11), 주인과 아들은 채무로 인한 여종을 성적으로 이용해

23 기원전 8세기 소작농들의 채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농경사회 구조에 대하여 우택주, “아모스서의 난해구절(2:6b, 2:7c, 4:3b, 8:5)의 새로운 번역을 위한 주석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15 (2004년 10월), 334-335를 참고하라.

24 H.W. Wolff, 윗글, 200-201; J.L. Mays, 윗글, 45-46; G. Eidevall, 윗글, 114, 206; 배희숙, “이스라엘의 삼중관계: 이스라엘과 야훼, 열방, 예언자(암 2:6-3:8)”, 『선교와 신학』 59 (2023년 2월), 271-272. 이와는 달리 6b절에서는 채무노예 제도 자체를 비판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 A. Sheveka, “‘For a pair of shoes’: a new light on an obscure verse in Amos’ prophecy”, *Vetus Testamentum* 62 (2012), 95-114를 참고하라.

25 לָלוּ는 ‘보잘 것 없는’,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 낱말은 잠언에서 ‘부자’를 가리키는 עֲשִׂיר(아쉬르)와 대조를 이루며 함께 나오기도 한다(잠 10:15; 22:16; 28:11). עָנָו(עָנִי)는 ‘억압받는’, ‘고통 받는’, ‘가난한’, ‘초라한’ 사람을 가리키는 데, 부자가 아니라 폭력적이고 교만한 사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잠 16:19; 22:22; 30:14 참고). 이에 대해 H.W. Wolff, 윗글, 202를 참고하라.

26 הַעֲבָדָה<나아라>는 일반적으로 결혼 적령기의 ‘젊은 여자’를 가리키지만, ‘여종’을 뜻할 수도 있다(출 2:5; 삼상 25:42; 잠 31:15 참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억압의 다양한 측면을 고발하는 문맥에서 이 낱말은 누군가에게 종속된 사람으로 사실상 채무로 인해 종이 된 여종을 가리킬 수 있으며 앞서 언급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J.L. Mays, 윗글, 46; S.M. Paul, *Amo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Amos* [Minneapolis: Fortress, 1991], 82-83; G. Eidevall, 윗글, 115; G.R. Hamborg, 윗글, 211; 최인기, 윗글, 85-86). 8절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הַעֲבָדָה를 이방 종교의 성전 창기로 보는 견해에 대해 J.A. Soggin, 윗글 (1987), 48; F.I. Andersen/D.N. Freedman, *Amo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4A; New York: Doubleday, 1989), 318을 참고하라.

서는 안 된다. 이 여종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주인은 결혼에 따른 규정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죄는 근친상간의 죄와도 연관된다(레 18:8, 15; 20:11, 12; 신 22:30). 근친상간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레 20:17-26)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레 18:21) 죄이다.²⁷

8절에서는 담보(8a절)와 벌금(8b절) 제도의 악용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을 억압한 죄를 고발한다. 또한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 벌어들인 부를 야훼 제의를 위한 제물로 사용하는 잘못된(또는 거짓된) 제의를 비판한다.²⁸ 담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출 22:25-27; 신 24:6, 10-13, 17), 담보물로 잡힌 걸옷은 무조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걸옷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이다. 벌금은 발생한 손해를 갚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출 21:22; 신 22:19).

(2) 심판 선포(13-16절)

죄 고발에 이어 **הַיָּדֵי**(힌네/보라)²⁹와 함께 심판이 선포된다. 심판의 내용은 지진(13절)과 전쟁(14-16절)이다. 13절의 심판 내용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이를테면, 보다 넓은 문맥에서 제공되는 단서들에 기초하여 지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지진에 대해 언급하는 9장 1절에서 2장 14-16절을 회상한다.³⁰ 이와는 달리 다른 민족심판예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심판 도구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13절에서는 지진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그리고 14-16

27 H.W. Wolff, 윗글, 202-203.

28 H.W. Wolff, 윗글, 203; 박철우, 윗글, 113-114.

29 **הַיָּדֵי**(라켄/그러므로) 대신 **הִנֵּה**(힌네/보라)가 사용된 또 다른 곳인 6장 11, 14절; 9장 9절을 보라(H. Gese, 윗글 [1991], 423 참고).

30 H.W. Wolff, 윗글, 207-208.

절에서는 직접 전쟁을 나타낸다.³¹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이 제안하듯이 13절에서는 지진을 말한다.³²

13절의 심판 내용은 무엇보다도 상반절의 מַעֲיֵק(메이크)과 하반절의 תַּעֲרֵף(타이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확정될 수 있다. 각각은 동사 עוּק(우크)의 히필 분사형과 칼 미완료형으로서 구약성서에서 이곳에만 나온다. 어원이나 의미의 불확실함과 구약성서에서의 보기 드문 사용으로 인해 이 동사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학자들은 히브리어와 같은 어족에 속한 언어들(아랍어, 아람어, 우가리트어 등)과의 비교를 통해 이 동사에 대한 여러 가능한 해석들을 제시하기도 한다.³³ 그 가운데 이 동사가 지진에 대한 묘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견해로서 게제(H. Gese)의 설명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עוּק은 농작물을 실은 수레가 농경지를 지나가면서 땅이 움푹 패이는 것을 말한다.³⁴ 특별히 바위가 얇았던 이스라엘의 수레가 물건을 가득 싣고 지나갈 때 단단하지 않은 농경지의 땅이 파헤쳐지고 갈라지는데, 아모스가 이러한 농경생활에서 목격할 수 있는 현상

31 J.L. Mays, 윗글, 53.

32 H. Gese, "Kleine Beiträge zum Verständnis des Amosbuches", *Vetus Testamentum* 12 (1962), 417-424; J.L. Mays, 윗글, 53-54; G. Eidevall, 윗글, 119; H.W. Wolff, 윗글, 171; 요르예 레미아스, 윗글, 65-67; G.V. Smith, 윗글, 91.

33 고대 번역본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70인역(LXX)은 '구르다'로, 불가타(Vulgate)는 수레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초점을 두었고 탈군(Targum)은 어근이 비슷한 아람어 동사를 사용하여 '괴롭히다'로 번역했다. 고대 사본들의 다양한 번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 Gese, 윗글 (1962), 417-418; G.V. Smith, 윗글, 75; G. Eidevall, 윗글, 113을 참고하라. 학자들 역시 아랍어나 아람어와의 비교를 통해 '방해하다/느긋해지다', '누르다', '신음 소리를 내다', '조각내다', '흔들다' 등으로 이해한다. 주석가들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 M.D. Carroll, 윗글, 197을 참고하라.

34 게제는 성서 이후의 자료들(탈무드, 미드라쉬 등)에서 두 개의 명사 עוּקָא(우카/움푹 패인 땅, 우묵한 곳)와 עוּקָא(아바크/발로 밟혀 움푹 패인 곳)를 찾아내고 이로부터 성서 히브리어에 '움푹 패이게 하다'를 뜻하는 동사 עוּק(우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아람어와의 비교를 통해 '쪼개다', '찢어 찢히다', '금이 가다' 등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H. Gese, 윗글 [1962], 421).

을 사용하여 지진을 상징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³⁵

몇몇 번역 성서들(루터성경, 취리히성경 등)과 주석가들(G. Eidevall³⁶, J.L. Mays³⁷)은 HALOT의 여러 제안 가운데 하나를 따라 ‘흔들리다’, ‘비틀거리다’로 번역한다.³⁸ 이러한 번역은 뒤따라 나오는 **מְרַדְדִים**(타흐테 캬/너희 밑에 있는 것)과 들어맞는다. 곧 발아래 있는 것(땅)의 흔들림이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흔들거리는 것에 비유된다.³⁹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13절은 ‘보라, 내가 너희 밑에 있는 것을 흔들리게 할 것이니 곡식 단으로 가득 한 수레가 흔들리듯이 할 것이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3절에서는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비틀거리며 흔들리는 것처럼 지진으로 인해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재앙이 선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진에 이어 14-16절에서는 전쟁에서의 패배가 선포된다. 흩어지고 도망하는 군인들에 대한 표현이 되풀이되면서 전쟁에서의 패배가 강조된다.⁴⁰ 그렇지만 일부 학자들은 14-16절을 13절의 지진에 따른 결과로 여기기도 한다.⁴¹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지만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으로서 지진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전쟁 중의 병사들에 대한 묘사로 제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심판예언에서는 지진과 전쟁 모두 이제 일어날

35 윗글, 421-422.

36 G. Eidevall, 윗글, 112.

37 J.L. Mays, 윗글, 43.

38 벨하우젠(J. Wellhausen)은 **מְרַדְדִים**과 **מְרַדְדִים**를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를 뜻하는 아람어 **ܦܪܩ**에서 나온 **ܦܪܩܝܩ**와 **ܦܪܩܝܩ**(Qal)로 고쳐 읽을 것을 제안한다. J. Wellhausen, *Die Kleinen Propheten* (Berlin: Walter de Gruyter 1963), 74.

39 G. Eidevall, 윗글, 119.

40 S.M. Paul, 윗글, 95; M.D. Carroll, 윗글, 197-198.

41 G. Eidevall, 윗글, 119; G.V. Smith, 윗글, 91.

심판예언의 도구로 등장한다. 그런데 표제의 “지진 전 이년”이라는 표현과 이 심판예언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표제를 기록할 때에 지진과 전쟁 심판예언 가운데 지진 심판이 이미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표제는 아모스의 출신과 활동 시기에 대한 정보 이상의 것을 말한다. 그것은 아모스의 지진 예언이 실현되어졌음을 알리면서 아모스가 선포하는 심판예언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고히 한다.

4. 다섯째 환상보고문(9:1-4)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다섯 개의 ‘환상보고문’(7:1-3, 4-6, 7-9; 8:1-3; 9:1-4)은 민족심판예언(1-2장)과 마찬가지로 연작시로 되어 있다.⁴² 첫째⁴³와 둘째⁴⁴ 환상에서는 심판으로서 자연재해가 예고되는

42 아모스 7장 10-17절은 이미 학자들이 제안하듯이 나중에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본문은 연작시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 본문이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산문으로 되어 있는 형식에서 환상보고문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다섯 개의 환상보고문이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H.W. Wolff, 윗글, 131; J.A. Mays, 윗글, 13; V. Fritz, “Amosbuch, Amos-Schule und historischer Amos”, V. Fritz/K.F. Pohlmann/H.C. Schmitt (eds.), *Prophet und Prophetenbuch* [BZAW 185; Berlin: De Gruyter 1989], 30; 요르 예레미야스, 윗글, 22; G. Eidevall, 윗글, 202; J. Wöhrle, 윗글, 111-113; T.S. Hadjiev, 윗글, 78-95; 최종원, 윗글, 124-125).

43 첫째 환상(7:1-3)에서의 ‘늦은 싹’은 한 해의 마지막 파종 시기 이후에 올라온 것으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는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 준다. ‘늦은 싹’은 **קִצְוֹן** (레퀘쉬)를 옮긴 것이다. 이 낱말은 구약성서에서 아모스 7장 1절에만(두 번) 나온다. 이는 늦은 봄 4월경에 올라오는 마지막 모종을 가리킨다. 이 싹이 올라오는 때는 반년 동안 진행되는 건기가 시작되기 전 아직은 늦은 비로 자랄 수 있는 마지막 농작물의 싹이 움트는 시기로서, 첫 수확을 왕에게 바친 뒤에 파종한 두 번째 수확을 위한 농작물의 싹이 올라오는 때이다(W.H. Wolff, 윗글, 342-343 참고). 메뚜기가 마지막 파종 이후 땅에 올라온 모든 풀을 다 먹음으로써 먹을거리가 사라진다.

44 둘째 환상(7:4-6)에서는 재앙이 더욱 심해진다. ‘불비’가 바다와 땅에 내려 먹을거리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불비’는 불포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을 따라 MT의 낱말 끊기를 달리하면서 **אֵשׁ בְּרִיב** (라리브 바에쉬)를 **אֵשׁ לִרְבִּיב** (리르비브 에쉬)로 고

데, 셋째⁴⁵와 넷째⁴⁶ 환상에서는 각각 전쟁과 멸망이 선포된다. 또한 첫

쳐 읽은 것이다(H.W. Wolff, 윗글, 338. 요르 에레미아스, 윗글, 173-174; J.A. Mays, 윗글, 130; J.A. Soggin, 윗글, 113; G.V. Smith, 윗글, 221도 참고). 바다와 땅을 마르게 하는 '불비'를 통한 재앙은 한여름의 폭염으로 인한 가뭄으로 이해할 수 있다(H.W. Wolff, 윗글, 344; 요르 에레미아스, 윗글, 173-174; 최인기, 윗글, 248 참고). 아모스는 중보기도를 한다. 첫째와 둘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뚜기떼와 극심한 가뭄의 자연재해로 예고되는데, 아모스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어 재앙은 일어나지 않는다.

- 45 셋째 환상(7:7-9)의 재앙의 내용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다. 이는 구약성서에서 아모스서(7:7, 8)에만 나오는 **קִיץ**(아나크)에 대한 이해의 다양함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낱말은 전통적으로 '납' 또는 납으로 만든 '다림줄'로 번역되었다. 다림줄은 수평이나 수직을 살피는 데 사용하기 위해 추를 달아놓은 줄을 말한다. 그래서 셋째 환상에서 말하는 재앙은 북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로 이해되었다(J.L. Mays, 윗글, 131-132; J.A. Soggin, 윗글, 115-117). 그런데 이러한 번역은 본문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 전통적인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벽의 상태를 시험하는 '납' 또는 '다림줄'을 가져오시게 된다(8절).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다림줄로 된 벽 위에서 계시게 된다(7절). 바이얼린(W. Beyerlin)은 <아나크>에 대한 기존의 번역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아시리아어 anaku에서 온 낱말로 이해했다(W. Beyerlin, *Blieit, Brecheisen oder was sonst? Revision einer Amos-Vision* [OBO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8, 18-22). 이 아시리아 낱말은 '주석'을 뜻한다. '주석'은 금속을 버리는 것으로 동으로 만든 칼을 날카롭게 버리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바이얼린은 <아나크>가 무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쓰였다고 한다. 이런 의미를 위해 울링어(C. Uehlinger)는 바빌로니아 시대의 것인 점토 무늬에서 도시 성벽 위에 있는 전쟁의 여신을 끌어온다. 그 여신이 도시를 공격하고 부순다는 것이다(C. Uehlinger, "Der Herr auf der Zinnmauer. Zur dritten Amos-Vision (Am, VII 7-8)", *Biblische Notizen* 48 [1989], 89-104). 최근의 루터성서(2017년)와 취리히성서(2007년)에서는 <아나크>를 '주석'(Zinn)으로 번역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져오실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그 재앙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주석'(7, 8절)과 '칼'(9절)이 상징하듯이, 셋째 환상에서 보여주는 심판의 내용은 전쟁이다. <아나크>를 '주석'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U. Becker, "Der Prophet als Fürbitter: Zum Literarhistorischen Ort der Amos-Visionen", *Vetus Testamentum* 51 (2001), 146; V. Fritz, 윗글 (1989), 30-31; J. Jeremias, "Das unzugängliche Heiligtum. Zur letzten Vision des Amos", *Hosea und Amos. Studien zu den Anfängen des Dodekapropheten* (FAT 13; Tübingen: Mohr Siebeck, 1996. ㄷ), 246-247 등을 참고하라.

- 46 넷째 환상(8:1-3)에서 심판을 나타내는 8장 1절의 **קִיץ**(카이츠)는 '여름'이나 '여름 과일' 또는 '여름 추수'를 뜻한다. **קִיץ קָלֵב**(클롬 카이츠)는 '여름 열매가 들어 있는 광주리'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름 과일을 위한 광주리' 곧 추수를 위한 광주리로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קִיץ**(카이츠)는 2절의 '끝'을 뜻하는 **קֵץ**(케츠)와 함께 언어유희의 소재로 사용되었다(이러한 언어유희에 대하여 박지은,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아모스 9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5 [2022년 9월], 108도 참고하라). 이 두 낱말의 어원은 각각 **קִיץ**(카이츠)와 **קָצַר**(카차츠/꺾다)로서 서로 다르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קִיץ**(카이츠)와 **קֵץ**(케츠)를 동일하게 발음했다. 폴(S.M. Paul)에 따르면, 남유다에

묵음에서는 아모스의 개입으로 심판이 연기되지만, 둘째 묵음에서는 아모스의 개입이 없다. 다섯째 환상보고문은 무엇보다도 공통점을 공유하는 짝이 없다. 게다가 앞선 환상들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데⁴⁷, 여기서는 아모스 스스로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첫 묵음(7:1-3, 4-6)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와 통시적으로 분리하거나(이를테면, E. Würthwein, V. Fritz 등)⁴⁸, 처음 두 묵음과 마지막 본문(9:1-4)을 서로 다른 시기의 것으로 분리하기도 한다(이를테면, G. Eidevall 등)⁴⁹. 또한 마지막 환상보고문(9:1-4)에서 절멸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본문이 '사건 후 예언(vaticinium ex eventu)'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한다면, 마지막 환상보고문의 기록 시기를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이를테면, J. Jeremias)나 포로시대 또는 포로시대 이후(이를테면, U. Becker)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심하게 구성된 환상보고문들은 서로 통시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오히려 차이점들을 통해 본문들은 점층적으로 마지막 단락의 전쟁을 통한 절멸 심판을 향하고 연작시

서는 이중모음을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중모음을 단모음화시켰기 때문에, 1절의 ׁׁׁ 를 2절의 ׁׁ 와 동일하게 발음할 수 있다(S.M. Paul, 윗글, 254; H. Gese, 윗글, 79; M.D. Carroll, 윗글, 437-438).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포에서 '추수'와 '끝'을 뜻하는 동음이의어인 ׁׁ 를 통해 언어유희의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S.M. Paul, 윗글, 254). 그래서 2절은 '끝이 이르렀다' 또는 '(여름)추수 때가 이르렀다'로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아모스 전승이 유다에서 각각 ׁׁ 와 ׁׁ 로 고쳐 기록된 듯하다. 넷째 환상에서는 심판의 도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모스의 개입이 없고 심판이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린다. 셋째와 넷째 환상에서 아모스의 달라진 역할은 상황을 날카롭게 만들고,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게 한다.

47 아모스 7장 1, 4, 7절; 8장 1절 참고.

48 E. Würthwein, 윗글, 28-35; V. Fritz, 윗글 (1989), 30-33.

49 E. Eidevall, 윗글, 224-230.

로 구성된 환상보고문의 최고점에 이르게 된다.⁵⁰

1) 기본본문

문학적으로 통일성을 갖는 본문인 아모스 9장 1-4절⁵¹은 머리말과 함께 환상의 배경이 되는 장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그 장소는 ‘제단’(מִזְבֵּחַ, 미쯔베아흐)과 ‘기둥머리’(רִיבָּב, 캅토르)⁵²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이다. 이 성전은 북이스라엘의 국가 성소였던 벰엘의 성전으로 볼 수 있다.⁵³

이곳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전쟁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רָאִיתִי, 라이티). 먼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기둥머리를 치라고 명령하신다.⁵⁴ 기둥머리를 치라는 명령에 이

50 요르 에레미아스, 윗글, 20.

51 아이데발은 2-4a절은 주제와 관련해서는 1b절에 연결되어 있지만, 어휘나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본다(E. Eidevall, 윗글, 225). 그러나 2-4a절은 1b절에 대한 부연설명을 통한 강조로서 통시적으로 분리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 1-4절을 세심하게 짜인 통일적인 문학 단위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T.S. Hadjiev, 윗글, 62-65를 참고하라.

52 성전 입구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 불리는 두 기둥(왕상 7:21)을 참고하라.

53 셋째 환상보고문에 들어 있는 7장 9절과 환상보고문들 사이에 있는 벰엘의 제사장 아마샤 이야기(7:10-17) 참고. 1절의 성전을 벰엘 성전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J.L. Mays, 윗글, 133, 152; S.M. Paul, 윗글, 274; F.I. Andersen/D.N. Freedman, 윗글, 835; M.D. Carroll, 윗글, 479를 참고하라. 다섯째 환상보고문을 유다 멸망 이후의 기록으로 보는 학자들은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본다(G. Eidevall, 윗글, 225, 228; U. Becker, 윗글, 147).

54 1절에서 누가 기둥머리를 치는가와 관련하여 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동사 ָרַב (하크/치라, נָכַח [나카/치다] 히필 명령 2인칭 남성 단수)를 예언자를 향한 명령으로 보고 기둥머리를 치는 사람을 예언자로 보는 경우가 있다(A. Scharf, “The Fifth Vision of Amos in Context”, P.L. Reddit/A. Scharf (eds.),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32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48-49). 그러나 필사오류에 근거하여 *waiqtol* 형태인 ָרַב (바야크)로 고쳐 읽고 ‘그리고 그가 쳤다’로 풀이하기도 한다(H.W. Wolff, 윗글, 385-386). 또는 Haplographie로 인하여 ָרַב가 빠진 것으로 보고 ָרַב 대신 נָכַח의 히필 부정사 절대형 נָכַח (학케)로 읽고 문맥에 따라 ‘내가 칠 것이다’로 이해하기도 한다(J.A. Soggin, 윗글 [1987], 120; 요르 에레미아스, 윗글, 206). 성전 기둥머리를 치는 것은 초인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직접 치시거나 하늘회의에 있는 누군가를 통

어 그 명령이 이행된 결과가 묘사된다.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부서진 것들이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⁵⁵.

예레미아스는 아모스 9장 1절과 이사야 6장의 본문이 같은 과정을 제시한다고 보고 1절의 흔들림을 문지방으로 제한한다. 1절에서는 성전 문지방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지진이나 건물의 전복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⁵⁶ 그러나 성전 문지방의 흔들림과 관련하여 두 본문을 비교하면 서로 다른 점들이 발견된다. 이사야 6장에서 문지방은 스랍들의 외침으로 흔들리는데(3-4절), 그들의 외침은 예배와 기도의 거룩함에 대한 것이다(3절). 이사야는 이 거룩함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5절). 이때 성전은 계속 기능한다. 그래서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이 정화된다(6-7절). 정화된 이사야는 하늘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8-13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없다. 따라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문지방의 흔들림은 정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아모스 9장 1절에서의 흔들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명령 뒤에 곧바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전쟁 심판의 말씀이 이어진다. 따라서 1절의 흔들림은 지진으로 인한 파괴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절멸의

해 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MT를 따라 읽고 '치다'의 주체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다.

- 55 접미사(3인칭 남성 복수)와 함께 접속사에 연결된 동사 **בצט**(바차아/잘라내다)(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의 형태 **עצט**(우브차암)은 모음표시를 달리하여 **עצט**(우비츠암)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는 '잘라냄, 중단' 또는 불의하게 얻은 '이익'을 뜻하는 명사 **עצט**(베차아)에 접미사(3인칭 남성 복수)가 접속사와 결합된 형태이다(렘 51:13 참고). 이러한 읽기에 따르면, 불의하게 얻은 그들의 이익이 그들 모두의 머리 위에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56 예레미아스는 아모스 9장 1절과 이사야 6장에서의 문지방의 흔들림을 성전이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안전을 보장하지도 않게 되는 심판이라고 주장한다(J. Jeremias, *윗글* [1996. ㄷ], 251-254).

전쟁 심판이 선포된다. 전쟁을 상징하는 낱말들인 **קָרָה**(헤레브/칼)와 **קָרָה**(하라그/죽이다)를 통해 1aβ절과 4절은 전쟁에 대한 묘사의 테두리를 이룬다. 이 테두리 안에서는 누구도 그 전쟁으로부터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2) 기본본문의 기록 시기

첫 아모스서에 속하는 기본본문 가운데 지진과 전쟁이 함께 심판으로서 예언되는 곳은 북이스라엘 심판예언과 이곳뿐이다. 이 둘의 차이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예언에서는 지진과 전쟁이 순서를 두지 않고 마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예언되지만, 이 환상본문에서는 두 요소가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지진이 명령으로 언급되지만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표제는 독자가 지진에 대해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표제로부터 본문은 기록 시기를 위한 *terminus a quo*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지진은 지금 명령되고 전쟁은 앞으로 내려질 심판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황으로부터 지진은 이미 일어난 일로 여겨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지진이 이 기록 시기 결정에서의 *terminus post quem*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서 지진으로부터 살아남을 자가 절멸할 전쟁이 언급된다. 일부 학자들은 절멸에 대한 표현을 근거로 환상본문을 ‘사건 후 예언’으로 보기도 하지만⁵⁷ 이스라엘 역사에 그러한 총체적 심판은 없었다. 성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더라도(왕하 17:6, 23, 27 등) 절멸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또 북이스라엘 사회의 타락과 부패에 근거한 심판예언의 두 요소 곧 지진과 전쟁이 환상본문에서의 그

57 위의 193쪽 참고.

것과 다른 것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북이스라엘 심판 예언에서 고발된 사회상이 지진을 겪고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전쟁 심판이 보다 가혹하게 내려질 것이고 그것은 곧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본문 기록 시기의 terminus ante quem은 북이스라엘 멸망(기원전 722년)이라고 할 수 있다.

5. 나가는 말

지진이 언급되거나 암시되는 표제(1:1)와 북이스라엘 심판예언(2:6-16)과 다섯 번째 환상보고문(9:1-4)은 모두 첫 아모스서에 들어있는 기본본문들이다. 표제에서의 지진은 첫 아모스서의 독자들에게 아모스의 활동 시기를 알려 주는 기점의 역할을 한다. 이는 그들이 지진을 겪었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표제의 지진은 아모스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예언자임을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사실은 북이스라엘 심판예언(2:6-16)에서 확인된다.

이 예언에서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죄의 고발이 자세하게 묘사된다. 채무노예의 인신매매, 불공정한 재판, 채무관계를 이용한 성적 착취, 담보와 벌금 제도의 악용 등 사회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법적 경제적 제도적 장치들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죄에 대해 지진과 전쟁의 심판이 선포된다. 이로부터 첫 아모스서의 독자는 표제의 지진이 아모스가 예언한 지진이 실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환상보고문에서 북이스라엘 심판예언에 있는 지진과 전쟁의 심판이 되풀이된다. 하지만 지진은 지금의 명령으로, 전쟁은 이제 내려질 심판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이를 표제와 연결하면 지진 심판

은 이미 내려진 것이다. 또 북이스라엘 심판예언과 비교하면 환상본문의 시점이 지진 이후 북이스라엘 멸망 이전이며, 북이스라엘 심판예언에서 아모스가 고발한 사회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쟁 심판이 더욱 절망적으로 선포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진은 하나님이 내리실 절멸 전쟁이라는 심판의 진정성을 강화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첫 아모스서에서의 지진 모티브는 표제(1:1)와 북이스라엘 심판예언(2:6-16)과 다섯 번째 환상보고문(9:1-4)을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는 통일적 구성의 요소로 기능한다. 또 첫 아모스서의 청중/독자들에게 다가올 전쟁 심판이 필연적이며 파국적이라는 긴장감과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문학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지진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불의가 만연한 북이스라엘 사회에 선포되는 경고의 메시지에 진정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

참고문헌

- 구자용, “아모스서의 이방민족들에 대한 예언: 심판과 구원의 동일한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과 이방민족들”,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8 (2018년 4월), 25-55.
- 김영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1-2장의 열방심판 본문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 (2012년 10월), 29-51.
- 류호준/주현규, 『아모스서. 시온에서 사자가 부르짖을 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 배희숙, “아모스의 열방 심판 말씀(1:3-2:5): 이웃 민족의 ‘서너 가지 죄’의 성격과 유다 심판 말씀의 기능”, 『장신논단』 54 (2022년 12월), 9-34.
- _____, “이스라엘의 삼중관계: 이스라엘과 야훼, 열방, 예언자(암 2:6-3:8)”, 『선교와 신학』 59 (2023년 2월), 265-296.
- 박지은,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아모스 9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5 (2022년 9월), 102-128.

- 박철우, 「아모스/오바다」(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2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방기민, “아모스서 통일성 논쟁에 대한 재고. 아모스의 지진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17 (2023년 10월), 123-153.
- 요르 예레미아스, 「아모스」(채홍식 옮김), (서울: 성서와함께, 2006). 원제 Jeremias, J., *Der Prophet Amo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 우택주, “아모스서의 난해구절(2:6b, 2:7c, 4:3b, 8:5)의 새로운 번역을 위한 주석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15 (2004년 10월), 330-349.
- 이상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아모스’에 대한 고찰: 아모스 5장 1-17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81 (2021년 9월), 155-180.
- 최인기, 「아모스」(한국장로교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6).
- 최종원, “신명기 계약 신학의 범주로서 아모스 읽기: 아모스서의 ‘서너 가지 죄’”, 『구약논단』 24 (2018년 9월), 201-229.
- Aharoni, Y.,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trans. A. F. Raine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 Andersen, F.I./Freedman, D.N., *Amo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4A; New York: Doubleday, 1989).
- Austin, S.A./Franz, G.W./Frost, E.G., “Amos’s Earthquake: An Extraordinary Middle East Seismic Event of 750 B.C.”, *International Geology Review* 42:7 (2000), 657-671.
- Becker, U., “Der Prophet als Fürbitter: Zum Literarhistorischen Ort der Amos-Visionen”, *Vetus Testamentum* 51 (2001), 141-165.
- Beyerlin, W., *Bleilot, Brecheisen oder was sonst? Revision einer Amos-Vision* (OBO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8).
- Carroll R., M.D., *The Book of Amo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20).
- Dietrich, W., “JHWH, Israel und die Völker beim Propheten Amos”, *Theologische Zeitschrift* 48 (1992), 315-328.
- Donner, H.,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2* (ATD.E 4/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 Eidevall, G., *Amo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Yale Bible 24G;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17).
- Finkelstein, I., “Hazor and the North in the Iron Age: A Low Chronology Perspective”,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14 (1999), 55-70.

- Fritz, V., “Die Fremdvölkersprüche des Amos”, *Vetus Testamentum* 37 (1987), 26–38.
- _____, “Amosbuch, Amos-Schule und historischer Amos”, V. Fritz/K.F. Pohlmann/H.C. Schmitt (eds.), *Prophet und Prophetenbuch* (BZAW 185; Berlin: De Gruyter, 1989), 29–43.
- Gese, H., “Kleine Beiträge zum Verständnis des Amosbuches”, *Vetus Testamentum* 12 (1962), 417–438.
- _____, “Komposition bei Amos”, *Alttestamentliche Studien* (Tübingen: Mohr Siebeck, 1991), 94–115.
- Hadjiev, T.S., *The composition and redaction of the Book of Amos* (BZAW 393; Berlin/New York, 2009).
- Hamborg, G.R., *Still Selling the Righteous. A Redaction-Critical Investigation of Reasons for Judgement in Amos 2.6-16* (LHBOT 555; New York, NY: T & T Clark, 2012).
- Jeremias, J., “Amos 3–6. Entstehungsgeschichte eines Prophetenbuches”, *Hosea und Amos. Studien zu den Anfängen des Dodekapropheten* (FAT 13; Tübingen: Mohr Siebeck, 1996. ▽), 142–156.
- _____, “Völkersprüche und Visionsberichte im Amosbuch”, *Hosea und Amos. Studien zu den Anfängen des Dodekapropheten* (FAT 13; Tübingen: Mohr Siebeck, 1996. ◁), 157–171.
- _____, “Zwei Jahre vor dem Erdbeben”(Am 1,1), *Hosea und Amos. Studien zu den Anfängen des Dodekapropheten* (FAT 13; Tübingen: Mohr Siebeck, 1996. ▽), 183–197.
- _____, “Das unzugängliche Heiligtum, Zur letzten Vision des Amos”, *Hosea und Amos. Studien zu den Anfängen des Dodekapropheten* (FAT 13; Tübingen: Mohr Siebeck, 1996. ▽), 244–256.
- Mays, J.L., *Amos. A Commentary* (OTL; London: SCM, 1969).
- O’Connell, R.H., “Telescoping N + 1 Patterns in the book of Amos”, *Vetus Testamentum* 46 (1996), 56–73.
- Paul, S.M., *Amo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Amos* (Minneapolis: Fortress, 1991).
- Schart, A., “The Fifth Vision of Amos in Context”, P.L. Reddit/A. Schart (eds.),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32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46–71.
- Schmidt, W.H.,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des Amosbuche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77 (1965), 168–193.

- Sheveka, A., “For a pair of shoes’: a new light on an obscure verse in Amos’ prophecy”, *Vetus Testamentum* 62 (2012), 95-114.
- Smith, G.V., *Amos. A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Regency, 1989).
- Soggin, J.A., “Das Erdbeben von Am 1,1 und die Chronologie der Könige Ussia und Jotham von Juda”,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2 (1970), 117-121.
- Soggin, J.A., *The Prophet Amos. A translation and commentary* (London: SCM, 1987).
- Uehlinger, C., “Der Herr auf der Zinnmauer. Zur dritten Amos-Vision (Am. VII 7-8)”, *Biblische Notizen* 48 (1989), 89-104.
- Waschke, E.J., “Die fünfte Vision des Amosbuches (9, 1-4) – Eine Nachinterpretatio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6 (1994), 434-445.
- Wellhausen, J., *Die Kleinen Propheten* (Berlin: Walter de Gruyter, 1963).
- Wöhrle, J., *Die frühen Sammlungen des Zwölfprophetenbuches. Entstehung und Komposition* (BZAW 360; Berlin: Walter de Gruyter, 2006).
- Wolff, H.W., *Dodekapropheten 2. Joel und Amos* (BK XI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5).
- Würthwein, E., “Amos-Studie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62 (1949-1950), 10-52.

검색어

환상, 환상보고문, 지진, 전쟁, 심판예언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Earthquake in the Book of Amos

Sang-Won Lee

Presbyteri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literary function and theological meaning of the earthquake-motif found in the title (1:1), the prophecy of doom against northern Israel (2:6-16), and the fifth vision (9:1-4) in the oldest book of Amos. For this purpose, first I analyze the three texts which belong to the oldest book of Amos. Next, I explain that an earthquake is stated and prophesied as the judgment of YHWH with the implied fulfillment of the prophecy.

The oldest book of Amos was written after the Syro-Ephraimite War in 733-722 BCE by Amos' disciples who applied and interpreted the original message of Amos in a new historical situation. The book consists of the title (1:1), oracles against the nations (chaps. 1-2), the prophecy of doom against northern Israel (chaps. 3-6), and five visions of Amos (chaps. 7-9), constructing the basic framework of the Book of Amos. In the title (1:1*) of the oldest book of Amos an earthquake is recorded, signifying the period of the ministry of the prophet Amos ("two years before the earthquake"). In the oracle against northern Israel (2:6-8, 13-16) social injustice is charged, and the earthquake with the war is predicted. And in the fifth vision (9:1-4)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about the earthquake is pronounced. In contrast with the earthquake, in this last

www.kci.go.kr

vision, the prophecy about the war becomes more devastating as a war of annihilation.

The motif of earthquake plays a major role in the composition of the oldest book of Amos and confirms the authenticity of the prophecy about the annihilation in the last vision. Furthermore, through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about the earthquake, the prophecy of Amos which was predicted two years before the earthquake is confirmed as God's words. And the warning of annihilation against northern Israel where social injustice prevailed thus becomes the authentic word of YHWH.

key words

vision, vision reports, earthquake, war, prophecy of doom

투고일: 2024년 10월 15일

심사일: 2024년 11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1월 15일

www.kci.go.kr